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3월 19일

CUOMO 주지사, DFS 조사로 SANDY 원조 통계가 가장 나쁜 은행들이 파악되었음을 발표

평균적으로 '하위 10개' 은행들은 그들이 받은 Sandy 보험 기금의 근 절반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은행 평균인 17%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하위 10개' 은행들은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Sandy 보험 원조에서 수 백만 달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금융서비스부(DFS)가 수퍼폭풍 Sandy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보험금 관련 통계가 가장 나쁜 '하위 10개' 은행들을 파악하여 그러한 기금을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라고 은행들에게 통보하였음을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주정부는 수퍼폭풍 Sandy의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들이 재건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구제를 가능한 한 속히 받을 수 있도록 번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피해자 한분 한분이 권리가 있는 돈을 철저히 받을 때까지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것인데, 일부 은행들은 계속 다른 은행들보다 훨씬 더 뒤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둘러 속도를 올려야 할 때입니다.”

금융서비스부장인 Benjamin M. Law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실적이 가장 안 좋은 은행들은 앞선 은행들보다 훨씬 더 뒤쳐져 있으며 절실히 필요한 Sandy 원조에서 수 백만 달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의 은행들로부터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기금이 방출되도록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미국 최대의 은행 및 모기지 서비스 회사들 중 33개를 검열한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FS)의 조사에서 밝혀진 사항:

- 평균적으로 '하위 10개' 은행들은 그들이 받은 Sandy 보험금 청구의 근 절반(44%)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은행 평균인 17%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 그러한 '하위 10개' 은행들은 현재 Sandy 보험금 청구에 대한 1,109장의 수표를 보류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총 약 4100백만 달러입니다.

Korean

- ‘하위 10개’ 중 하나인 Selene Finance는 그들이 받은 Sandy 보험 기금의 근 3/4(71%)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위 10개 은행 중에 그들이 받은 Sandy 보험 기금의 38%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없습니다.

DFS의 검토에서 미국 최대의 은행들 중 3개인 CitiMortgage, JPMorgan Chase 및 Bank of America는 현재 그들이 받은 보험료의 평균 11%만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3개 은행은 그들이 받은 1달러에 대해 89센트 이상을 지급한 것입니다. 6개 은행 및 모기지 서비스 회사들은 그들이 받은 1달러에 대해 현재 90센트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DFS가 검토한 은행들은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Sandy 보험금 청구에서 11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수표를 받는 많은 수퍼폭풍 Sandy 피해자들은 예기치 못한 장애물에 종종 직면하고 있습니다: 즉, 수표가 주택 소유자와 그 주택 소유자의 은행 또는 모기지 서비스 회사에 공동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은행이 수표에 배서를 해야 주택 소유자가 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중 배서는 모기지 약속어음과 보험 계약의 표준 요건입니다.

[2012년 12월](#)에 금융서비스부와 주요 은행들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선불 수표를 가속화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융서비스부는 또한 [2013년 2월](#)에 주택 소유자들에게 구제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모범 관행을 제안하는 서한을 은행과 모기지 서비스 회사에 보내었습니다.

금융서비스부가 2월에 이 문제에 대해 금융기관에 마지막 서한을 보낸 이후 은행과 모기지 서비스 회사들은 정규 지급 이외에 폭풍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1억 1200만 달러를 즉각 방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5개 은행 및 모기지 서비스 회사—JP Morgan Chase, Wells Fargo, CitiMortgage, Bank of America, Ocwen—의 직원들은 3월의 첫 주를 주 전역의 DFS 재난지원센터에서 보내면서 600여명의 뉴요커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Lawsky 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DFS의 촉구로 대부분의 주요 은행들은 이 유례 없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돈을 방출하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경쟁사들도 그러한 모범을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하위 10개’ 은행들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Sandy 피해자를 위한 보험금 액수의 리스트가 아래에 있습니다:

	아직 보유하고 있는 보험금 총액	아직 보유하고 있는 보험금의 퍼센트
Selene	\$1,872,333	71%

Finance		
Select Portfolio	\$4,859,158	56%
Astoria Federal	\$3,668,003	48%
Capital One	\$3,700,158	45%
Nationstar Mortgage	\$6,032,216	44%
Flagstar	\$2,922,580	43%
Specialized Loan	\$1,373,576	41%
OneWest Bank	\$14,332,160	39%
Sun Trust Mortgage	\$712,884	39%
Mid-Island Mortgage	\$1,251,184	38%
총액/평균 %	\$40,724,252	44%

오늘 Lawsky 부장은 DFS가 2012년 2월 서한에서 제시한 모범 관행을 구현할 것을 은행과 모기지 서비스 회사들에게 다시 촉구하였습니다. 모범 관행의 내용:

1. 돈을 지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를 설명하고, 필수 양식의 사본을 제공하며, 소비자 담당자의 직접 연락 정보가 담긴 명료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
2.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단일 담당자를 지정.
3. 보험회사에 의해 “긴급” 또는 “선불” 자금으로 지정된 모든 자금을 즉각 방출.

4.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한 필수 서류 제출을 허용.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폭풍 Sandy 관련 팩스 및 이메일은 별도 지정된 팩스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가져야 한다.
5. 각 수리 단계에 요구되는 서류의 양을 최소화.
6. 주택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모든 보험금을 이자가 붙는 에스크로 계정에 유지.
7. 모든 우편물을 접수 당일에 처리.
8. 완전한 서류를 받으면 보험금을 접수 당일에 지급.
9. 불완전한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추가 요건에 대한 상세 지침을 즉각 통보.
10. 지점이 있는 경우, 모든 지점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수표에 배서.
11. 지점에서 당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온라인 이체 또는 익일 배달을 통해 지급.
12. 투자자 가이드라인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만 검열을 요구.
13. 검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검열을 주택 소유자가 알게 되고나서 이틀 이내에 검열관을 배치.
14. 모든 검열은 모기지 서비스 회사의 자체 경비로 실시.
15. 주택 소유자가 주택 수리에 이미 지출한 돈의 상환만 추구한다는 증빙을 받으면 주택 소유자에게만 직접 수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온라인 이체.
16. 위의 모든 관행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요원을 유지.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